
II

지역경제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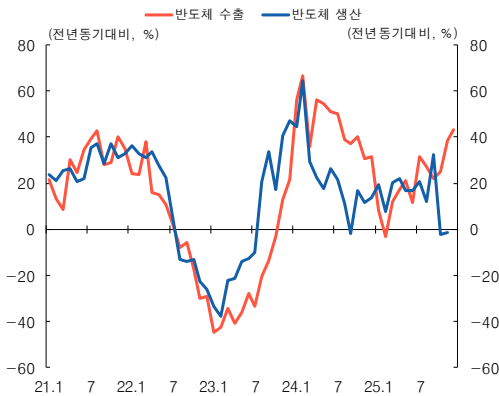
수도권	1. 경기본부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67
	2. 인천본부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70
동남권	3. 부산본부	최근 부산지역 대미수출 동향 및 특징	72
	4. 울산본부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75
	5. 경남본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경남지역 조선업 동향 및 향후 전망	78
충청권	6.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80
	7. 충북본부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	82
호남권	8.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84
	9. 전북본부	최근 전북지역 수출 동향 및 전망	86
	10. 목포본부	전남 서남권 조선업 동향 및 전망	88
대경권	11. 대구경북본부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	90
	12. 포항본부	포항지역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93
강원권	13. 강원본부	최근 강원지역 고용 여건 점검	96
	14. 강릉본부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강원영동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99
제주권	15. 제주본부	최근 제주지역 우주산업 추진 성과와 과제	102

경기본부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2025년 하반기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하면서 상반기(+11.4%)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¹ 특히 메모리 반도체(25년 상반기 17.7% → 25년 하반기 49.1%)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에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과 수요로 수출물가 상승²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7~11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며, 상반기(+17.1%)에 이어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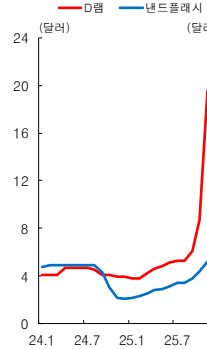
반도체 생산 및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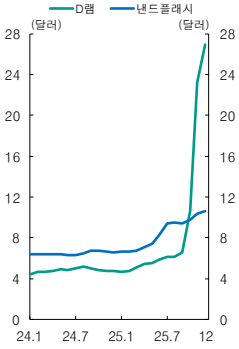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및 현물 가격

<고정거래가격¹⁾>



<현물가격¹⁾>



주: 1) D램은 DDR5 16Gb, 낸드플래시는 MLC 128Gb
자료: DRAMExchange

메모리 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 및 현물가격은 하반기 들어 급격한 상승세³를 보였다. 특히, D램의 경우 일반 서버 교체주기 도래,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는 2026년 2분기 이후로 예정⁴되어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다.

낸드플래시는 주요 생산 기업들이 감산기조를 유지하던 가운데, AI 서버용 대용량 스토리지 수요⁵ 확대로 eSSD 중심의 기업용 고사양 낸드플래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5년 하반기 들어 기존의 초과공급 국면에서 공급 부족 상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났다.

¹ 2025년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208억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누적 수출액은 1,734억달러로 집계되어, 2025년 연간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직전 최대 24년 1,419억달러)

² 2025년 하반기 중 반도체(D램) 수출물가지수(달러기준)는 상반기대비 29.4% 상승(전년동기대비 +24.0%)하였다.

³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DRAMExchange, %는 전분기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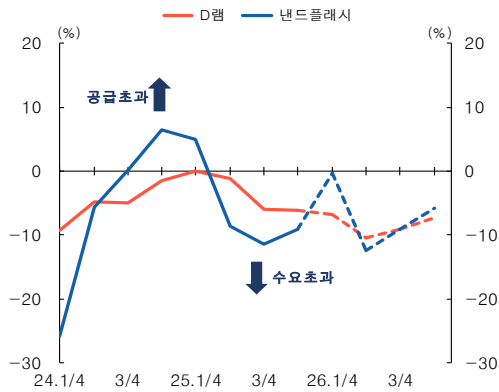
[D램(DDR5 16Gb)]: 25.3월 1.35(+9.0%) → 6월 5.10(+20.0%) → 9월 6.10(+19.6%) → 12월 20.80(+241.0%)

[낸드(MCL 128Gb)]: 25.3월 2.51(-18.8%) → 6월 3.12(+24.1%) → 9월 3.79(+21.5%) → 12월 5.74(+51.5%)

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설비투자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 진행중인 평택 P4 Phase 2 및 청주 M15X의 가동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마이크론의 경우 가장 빠르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시 팹이 2027년 상반기 중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⁵ 기존에는 스토리지 매체로 HDD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HDD 공급 부족 및 전력비용 절감을 위한 저전력 반도체 선호 등으로 낸드플래시 기반 eSSD로의 대체 수요가 증가하였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추이 및 전망¹⁾



주: 1) 점선은 전망치 (25년 4/4분기는 예상치)
자료: TrendForce

하반기 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모두 증가하며 연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¹⁾

분류		2025 (조원, %)			
		4/4	1/4	2/4	3/4
삼성전자 ²⁾	매출액	30.1	25.1	27.9	33.1 (130)
	영업이익	2.9	1.1	0.4	7.0 (79)
	영업이익률	9.7	4.4	1.4	21.1
SK하이닉스	매출액	19.8	17.6	22.2	24.4 (386)
	영업이익	8.1	7.4	8.1	11.4 (629)
	영업이익률	40.9	42.2	41.4	46.6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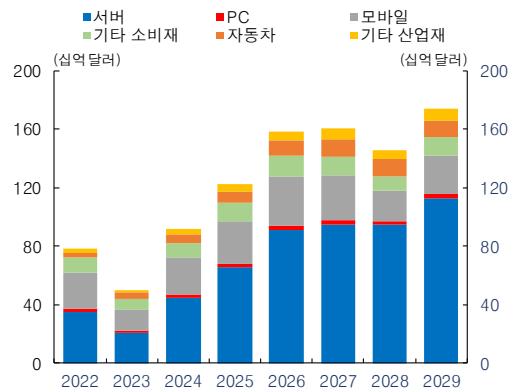
2) 반도체 부문 기준

자료: 각사 홈페이지

삼성전자는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파운드리 부분의 경우 영업적자가 2/4분기에는 2조원 이상이었으나 3/4분기에 1조원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⁶⁾하였다.

SK하이닉스는 HBM의 판매 호조가 지속⁷⁾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2025년 3/4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하였다. SK하이닉스의 D램내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HBM 비중은 최근 5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D램 용도별 글로벌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Gartner

2026년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추론용 AI칩

⁶⁾ 닌텐도 스위치2에 탑재되는 주요 칩 생산 수주, GAA(Gate-All-Aroun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미세공정에서의 수율 개선 노력 등이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⁷⁾ HBM 시장 내 SK하이닉스 점유율 (매출 기준): (23) 51.5% → (24) 53.3% → (25e) 60.3% (한국반도체산업협회)

⁸⁾ 업계에 따르면, 25.3분기 기준 HBM의 1Gb당 평균판매가격은 범용 D램의 약 3배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HBM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최근 범용 D램 가격이 공급 제약 및 일반 서버 수요 확대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범용 D램과 HBM간 수익성 격차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IC)⁹ 자체 설계, 소버린 AI¹⁰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추가적인 수요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PC 및 스마트폰 수요 성장세가 둔화¹¹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데이터센터 서버용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하며 전반적인 수요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제조기업의 생산능력 확대는 2026년 2분기부터로 예상되나 신규 설비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한 대규모 생산능력 확보는 2027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¹² 2026년 중 가동 예정인 삼성전자 P4 Ph2 및 SK하이닉스 M15X 공장의 경우 대부분 HBM 생산라인으로 구성되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생산 가능 물량은 이미 수주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범용 D램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 확보가 2027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물가 상승 및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해보면, 2026년도 국내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낙관적인 시장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

로 보인다. 다만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AI 사업 수익성 부진¹³ 등으로 투자계획이 조정될 경우 서버용 수요 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¹⁴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스마트폰과 PC의 D램 수요 성장세 둔화속에서,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가 완제품 가격 인상과 추가적인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규제¹⁵ 등의 대외 불확실성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생산 계획 달성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⁹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의 약어로,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반도체 칩을 의미한다. 특히 AI 추론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 칩 생산 발표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글의 TPU, 아마존의 Trainium이 대표적이다.

¹⁰ 2025년 미국 행정부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20개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총괄을 맡은 오픈AI는 지난 10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 HBM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서(LOI)를 체결했다. 미국 외에도 영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유사한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¹¹ 서버용 수요는 2026년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는 반면 PC 및 스마트폰은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Gartner)

¹²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삼성전자는 P5 공장, 하이닉스는 Y1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26년중 설비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025년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6년 Capex가 2025년 대비 증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업계에 따르면,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Capex는 각각 210억 달러, 219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6.7%, 2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낸드플래시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TrendForce)

¹³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오라클 AI 실적 기대치 하회,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지적하였으며, 브로드컴(Broadcom Inc)의 호크 탄(Hock Tan) 최고 경영자는 AI 매출이 비 AI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고 발표하였다.

¹⁴ 최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향후 반도체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여 기존의 분기 단위 제품 단가 계약에서 연간 단위 제품 단가 계약을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

¹⁵ 미국은 2025.12월 고성능 H200 칩에 대한 대중 수출의 조건부 허용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중국 정부가 대학 연구실 등 특별한 경우의 사용목적으로만 H200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이 통제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시장내 실제 수요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본부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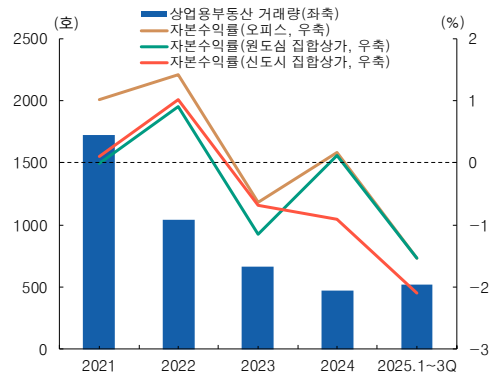
2025년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치 하락, 임대수입 감소 등으로 투자수익률¹⁶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거래량도 위축되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상업용부동산은 오피스¹⁷와 상가¹⁸로 구분되며, 인천지역 오피스는 원도심(구월, 주안, 부평)에 밀집되어 있다. 최근 신도시 권역(송도, 청라, 영종)에는 상업용 건물 내 구분된 공간을 개별 소유하는 집합상가가 주로 건설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피스와 집합상가를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권역의 상업용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시장 동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먼저 매매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25년 1~3분기 중 인천지역 오피스(-1.5%) 및 집합상가(-1.7%)의 자본수익률은 하락하였으며, 전국 및 5대 광역시 평균에 비해 부진한 모습¹⁹을 나타냈다. 인천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잉이 자본수익률 하락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합상가의 경우 원도심(-1.5%)에 비해 신도시(-2.1%) 권역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자본수익률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 이후 신도시 권역에 공급이 집중²⁰된

가운데 임대가격 하락과 높은 공실률 등에 따른 투자 수요 둔화가 더해져 자산가치 하락 압력이 보다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중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거래량 또한 저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권역의 거래량 감소세가 두드러져²¹ 매수 심리 위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거래량²² 및 자본수익률²³ 추이



주: 1) 오피스텔을 제외한 월평균 일반거래(매매+분양권+중여) 기준
2) 기간중 누적 수익률을 지역별 연면적 기반으로 가중평균
3)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을 신도시로, 나머지 지역을 원도심으로 분류
자료: 한국부동산원, 저자 시산

다음으로 임대차시장을 살펴보면 2025년 3분기 인천지역 오피스(-1.5%) 및 집합상가(-1.2%) 임대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며,

¹⁶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당해 기간 투입된 자본에 대한 전체 수익률로서 자본수익률(부동산 자산가치 증감을 기초 자산가치로 나눈 수익률)과 소득수익률(임대수입 등 상업용부동산 운영을 통한 순영업소득을 기초 자산가치로 나눈 수익률)의 합으로 정의된다.

¹⁷ 오피스는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일반건축물대장상 6층 이상인 일반건축물을 의미한다.

¹⁸ 상가는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건물 내 호별 개별 소유가 가능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은 집합상가, 건물전체를 1인 또는 공동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건물은 일반상가(중대형상가, 소형상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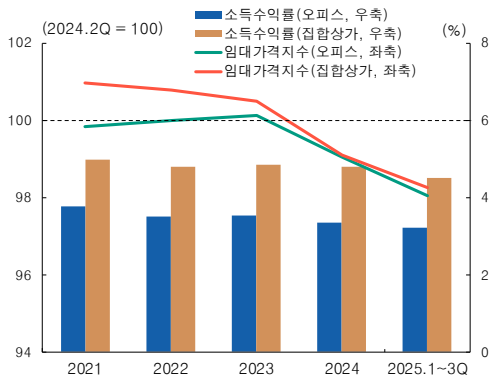
¹⁹ 2025년 3분기까지의 오피스 자본수익률(누적기준)은 전국 +1.7%,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평균 -0.2%를 기록하였으며, 집합상가는 전국 +0.3%, 5대 광역시 평균 -0.5%로 조사되었다.

²⁰ 신도시 지역(송도, 청라, 영종)은 인천지역 면적의 12.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20~2025년 중 인천시의 건축착공 건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업용부동산 신규착공의 39.5%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²¹ 2025.1~3분기 중 연수구(송도)·서구(청라) 합산 월평균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2021년대비 약 81.0% 감소하여 여타 지역(-57.2%)에 비해 큰 폭의 거래량 감소를 보였다.

전국 및 5대 광역시 평균 대비 부진한²²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는 창업수요 둔화²³ 등이, 집합상가는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 수준²⁴, 소비지출 감소²⁵ 등이 임대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의 소득수익률은 오피스(3.2%)와 집합상가(4.5%) 모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부동산 가치와 임대수입이 함께 하락하면서 소득수익률의 변동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¹⁾ 및 소득수익률²⁾ 추이



주: 1) 기간말 기준
2) 2025년은 1~3분기 수익율을 연율화(Annualization)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5년 3분기말 기준 인천지역 오피스 공실률(18.7%)은 전국 및 5대 광역시 평균²⁶을 상회하였으나, 집합상가(9.7%)는 이를 하회하였다. 오피스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노후화되거나 부

족하여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도심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임차수요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집합상가의 경우 신도시 권역의 집합상가 공실률(13.7%)이 원도심(8.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주거기반이 안정된 송도(2.5%)와 청라(6.8%) 지역이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종(30.0%) 지역에서 배후 주거단지 입주 지연²⁷ 등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이 확대되면서 권역 전체 공실률이 높게 집계된 데 기인한다.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공실률¹⁾

	2022	2023	2024	2025.3Q
오피스	17.2%	20.2%	19.6%	18.7%
집합상가	7.2%	7.9%	8.0%	9.7%
원도심 집합상가 ²⁾	6.8%	7.1%	6.9%	8.6%
신도시 집합상가 ²⁾	8.7%	11.1%	12.2%	13.7%

주: 1) 기간말 기준
2)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을 신도시로, 나머지 지역을 원도심으로 분류
3) 지역별 연면적 기반으로 가중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저자 시산

부동산 투자 및 소비 심리 회복, 영종 등 일부 지역의 주거시설 정비, 원도심의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인천지역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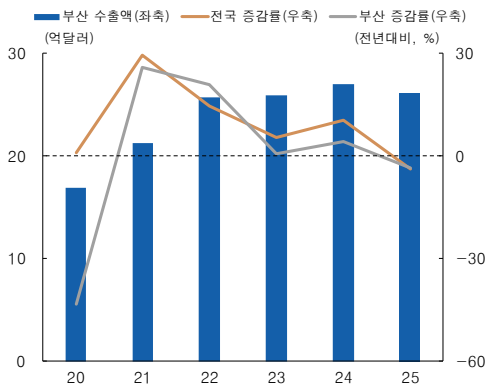
²² 2025년 3분기 기준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변동률(전년동기대비)은 전국 +21%,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평균 -0.7%를 기록하였으며, 집합상가는 전국 -0.7%, 5대 광역시 평균 -0.6%로 조사되었다.
²³ 2024년 중 인천지역의 창업법인수는 전년대비 12.0%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25.1~3분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로 전환되었다.(국가데이터처)
²⁴ 인천지역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3년 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데 이어, 2024년 중에도 11.5%로 전국 평균(10.5%)을 크게 상회하며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국세청)
²⁵ 2025.1~11월 중 인천지역 도소매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²⁶ 2025년 3분기말 오피스 공실률은 전국 8.9%,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평균 14.7%를 기록하였으며, 집합상가 공실률은 전국 10.5%, 5대 광역시 평균 11.8% 기록하였다.
²⁷ 최근 2~3년 사이 인천 영종에서는 미분양 우려에 따른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DL이앤씨가 영종하늘도시 1,39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 공사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산본부

최근 부산지역 대미수출 동향 및 특징

부산지역 대미(對美)수출은 2020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2025년 중에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6.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국(-3.8%)과 마찬가지로 감소 전환하였다. 미국은 부산지역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²⁸으로 지역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최근 부산지역 대미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관세정책을 비롯해 향후 대미수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대미 수출액 및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4년 기준 부산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전력용기기, 철강제품(주단조품, 철강판, 철강관및철강선), 산업기계(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산업용전기기기), 수송기계(항공기및부품, 자동차부품) 등 중화학공업품의 비중이 높다. 전반적으로 동 품목들의 대미 수출액은

부산 총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용기기와 항공기및부품의 경우 대미수출 비중이 각각 80.2%, 51.0%에 달해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산지역 주요 대미 수출품목¹⁾

품목명	수출액 (억달러)	비중 (%)	대미 의존도(%) ²⁾
전력용기기	2.8	10.3	80.2
주단조품	2.2	8.2	31.8
원동기및펌프	2.2	8.2	21.9
철강판	2.0	7.3	17.6
기계요소	1.6	5.8	24.2
항공기및부품	1.5	5.5	51.0
자동차부품	1.4	5.1	31.0
산업용전기기기	1.2	4.3	29.2
철강관및철강선	1.1	4.1	14.8
농산가공품	0.8	3.0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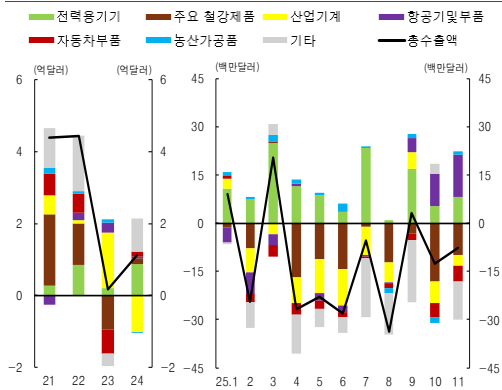
주: 1) 2024년 기준 대미수출액 상위 10개 품목(MTI 코드 3단위 기준)

2) 부산지역 총수출액 대비 대미수출액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년 들어 부산지역의 대미수출은 품목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으며, 그간 수출 증가를 주도해 온 일부 품목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체 대미수출액도 감소하였다. 2025년 중 전력용기기(전년동기대비 +48.1%), 항공기및부품(+14.6%), 농산가공품(+12.2%)은 증가흐름을 이어갔으나, 주요 철강제품(-16.1%), 자동차부품(-20.2%) 및 산업기계(-12.5%) 등은 감소로 전환하거나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²⁸ 2025년 기준 부산지역 대미수출액은 26.0억달러로 부산 총수출액의 18.3%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2015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부산지역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참고> '부산지역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참조

부산지역 주요 품목별 대미수출 증감액¹⁾

주: 1) 주요 철강제품은 주단조품, 철강판, 철강관및철강선, 산업기계는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산업용전기기기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년 중 부산의 대미 주요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은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부과(2025.3월 25%, 2025.6월 50%)에 주로 기인한다.²⁹ 이에 더해 지난해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착공 본격화³⁰ 등으로 2024년 대미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역시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완성차 수출 감소,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부산의 대미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원동기, 기계요소(전동축및기어, 벨브 등) 등 산업기계는 표준화 및 범용성이 높고 대량구매로 거래되는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품목인데, 중국, 동남아 등 생산비용이 낮은 경쟁국들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서 부산의 산업기계 대미수출액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2025년 중 부산의 대미 전력용기기 수출은 변압기와 전선을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다.³¹ 이는 미국이 2024년부터 AI 데이터센터 증설, 노후 전력망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부산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과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³²

항공기및부품과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는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산업계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공급자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과 품질 신뢰도가 높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수요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대미 수출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부산지역의 대미 수출은 미국 내 수요 구조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²⁹ 부산지역 주요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액은 2025년 들어 3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지속 감소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도입(2025.3월) 및 관세율 인상(2025.6월)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도 대미 주요 철강제품 수출액은 2025년 중 전년대비 16.9% 감소하였다.

³⁰ 미국은 2021년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통과 이후 도로·철도·전력망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4년에는 일부 프로젝트가 실제 착공 및 시행 단계로 이행되면서 건설 자재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³¹ 2024년 기준 부산지역 대미 전력용기기 수출액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변압기(49.6%)와 전선(39.9%)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중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7.8%, 96.7%로 나타났다. 변압기와 전선은 기술적·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이어서 수출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³² 초고압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LS Electric은 2025년 중 미국내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과 잇달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3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4조원을 넘어섰고, 2025년 12월에는 부산사업장(부산시 강서구 소재) 내에 5,463평 규모의 2 생산동 증설을 완료하여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CAPA)은 연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배전·송전 및 패드마운트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아이이엔한창(부산시 기장군 소재)도 부산지역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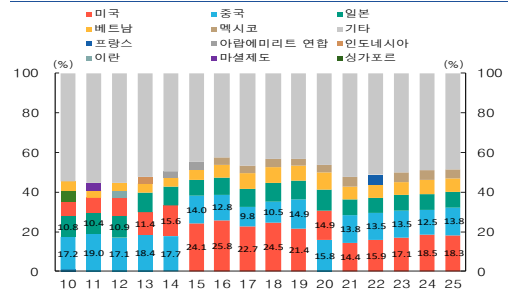
품목별로 차별화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용기기는 AI 확산 등으로 미국내 전력 인프라 수요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³³됨에 따라 앞으로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및부품도 미국 항공기 생산 및 정비 수요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2025년말 한국산 항공기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2025년 11월 14일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안정적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및 산업기계 등 단순 가격 경쟁형 범용 제품의 경우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등으로 대미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전력 인프라용 강재, 전기차용 경량화 부품, 스마트 공작기계 등 고기능·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

부산지역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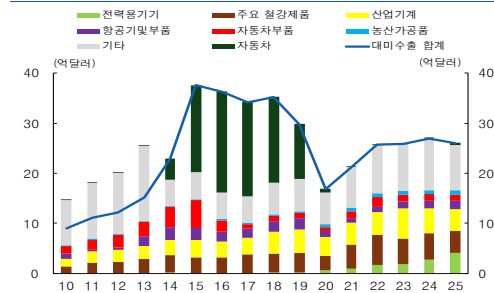
부산지역 수출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부산의 3위 수출국이었던 미국은 2013년 일본을 추월하여 2위로 올라섰으며, 2015년부터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중국을 제치고 부산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2015~2019년 동안 대미 자동차 수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³⁴, 2020년 이후에는 철강제품과 전력용기기 등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부산지역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부산지역 대미 품목별 수출액 추이¹⁾



주: 1) 주요 철강제품은 주단조품, 철강판, 철강관및철강선, 산업기계는 원동기및펌프, 기계요소, 산업용전기기기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³³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미국 변압기 시장규모는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연평균 7.7%씩 성장해 2024년 약 122억달러에서 2034년 약 257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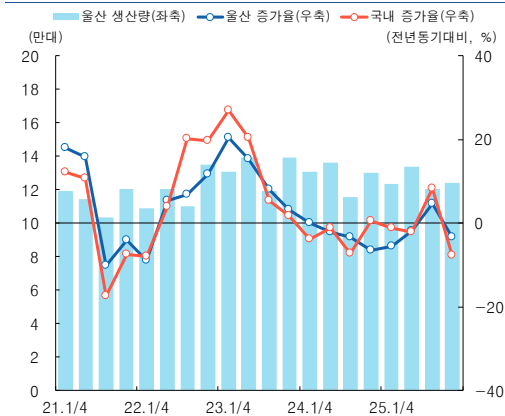
³⁴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생산 효율화 전략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닛산 로고를 수탁 생산하여 연평균 약 10만대(2018년까지 누적 50만대)를 북미로 수출해 왔다. 그러나 그러나 닛산의 생산 전략 변경 등에 따라 2020년 3월 위탁 생산이 종료되었다.

울산본부

울산지역³⁵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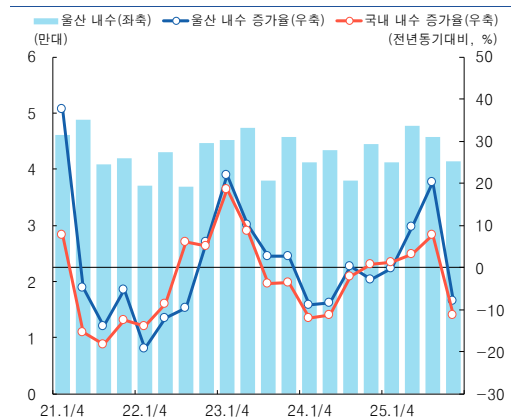
1. 2025년 하반기 동향

2025년 하반기 울산지역 자동차 생산(+1.2%, 7~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수출이 감소(-1.1%)하였으나 내수판매가 호조(+7.9%)를 보이면서 강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생산(+1.2%)은 내수가 약보합세³⁶(-0.6%)를 보였으나,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1.5%)이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국내 및 울산지역 자동차 생산¹⁾²⁾³⁾

주: 1) 월평균 생산
2)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준
3) 2025년 4/4분기의 경우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추산

내수판매(+7.9%, 7~11월 기준)는 2024년도 전기차 수요급감³⁷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³⁸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는 인기 SUV 차종을 중심으로 신차효과³⁹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판매가 크게 늘면서 큰 폭 증가(+20.3%)하였다. 4/4분기(10~11월 기준)에는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⁴⁰, 일부 차종의 리콜, 일부 상용차⁴¹ 생산의 타지역 이전 계획 등의 영향으로 감소(-7.8%)하였다.

국내 및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내수판매¹⁾²⁾³⁾

주: 1) 월평균 내수판매
2)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준
3) 2025년 4/4분기의 경우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추산

³⁵ 현대차의 차종별 생산실적과 공장별 생산차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 내수판매 및 수출(대수)를 추산하였다.

³⁶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분의 내수판매와 국내 전체 생산분의 내수판매가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국내시장 경쟁심화로 국내 자동차 중견3사(KGM,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내수판매가 부진했던 데 주로 기인한다. 2025년 하반기(7~11월) 중견3사 내수판매는 KGM(-6.1%, 전년동기대비), 르노코리아(-9.7%) 및 한국GM(-39.0%)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현대차(+0.9%, 전국기준)와 기아차(+3.0%)는 소폭 증가하였고 수입차 브랜드(+24.1%)는 큰 폭 증가하였다.

³⁷ 전기차 캐즘현상 및 배터리 화재사고로 인한 전기차 안정성 논란 등으로 2024년 전기차 내수판매는 크게 감소하였다. 2024년 전기차 내수판매 증감률(전년동기대비): -55.5%(1/4분기) → -49.8%(2/4분기) → -12.7%(3/4분기) → -38.8%(4/4분기)

³⁸ 기획재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 → 3.5%)를 12월말까지 연장(6.16일)하였다.

³⁹ 2025년 상반기중 출시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신차효과로 팰리세이드 판매량은 금년중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팰리세이드 월평균 내수판매(대수) 및 증감률(전년동기대비): 3,659(+80.6%, 1/4분기) → 6,604(+350.6%, 2/4분기) → 5,180(+241.6%, 3/4분기) → 4,477(+135.7%,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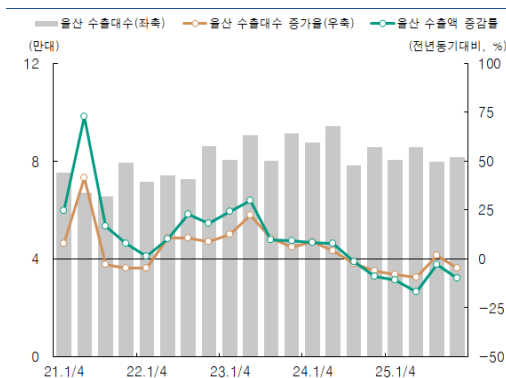
⁴⁰ 2025년 10~11월 영업일수는 42.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영업일수(45.5일) 대비 3.0일 감소하였다.

⁴¹ 현대자동차는 포터 트럭 생산을 2027년 초부터 울산공장에서 전주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2024.12월)하여, 현재는 생산설비를 재배치하고 생산을 줄이는 등 생산이전을 준비 중이다.

수출(-1.1%, 7~11월 대수 기준)은 하이브리드차(+28.2%)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전기차(-42.1%)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에는 미국 현지생산 확대, 미국의 관세정책, 전기차 수요 부진, 노조파업⁴²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팰리세이드 등 신차출시 효과⁴³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1.7%)하였다. 4/4분기(10~11월 기준)에는 10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5.0%)하였다.

수출금액(-6.5%, 7~12월 기준)을 보면 미국(-10.4%)은 감소한 반면, 美 관세부과의 여파로 미국향 수출물량이 타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유럽(+33.4%)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출¹⁾²⁾³⁾



주: 1) 월평균 수출

2)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준

3) 2025년 4/4분기 수출 대수의 경우 10~11월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울산본부 추산

2. 2026년 전망

2026년 울산지역 자동차 생산은 수출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소폭 증가하며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판매는 수입차와의 경쟁심화⁴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차 출시⁴⁵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친환경차 판매촉진 정책⁴⁶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미국 현지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공장(HMGMA)에서 2024년 12월 1,006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 1~11월중 월평균 약 5,311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등 현지생산량을 확대해오고 있다. 더욱이 현대차는 동 공장의 생산능력을 당초 30만대에서 50만대(2028년 예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하이브리드차 등 현지생산 차종도 추가⁴⁷하여 미국내 판매량

⁴² 현대차 노조는 임금단체 교섭결렬 등의 사유로 2018년 이후 7년만에 파업(9.3~5일)을 단행하였다.

⁴³ 금년 상반기중 팰리세이드 신차가 출시되면서 3/4분기 팰리세이드 수출(대수)이 전년동기대비 32.6%(+9,904대) 증가하였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대수)에서 팰리세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분기 기준 약 16.8%로 추정된다.

⁴⁴ 2025년 1~11월 기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점유율 1위(29.5%)를 차지하며 기아차(2위, 27.7%)와 현대차(21.3%)를 앞서고 있다. 2025년에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도 2026년에 국내 판매차종을 늘릴 예정이며, Zeekr, Xpeng 등 여타 중국 전기차 업체도 2026년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등 전기차 부문에서 수입차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⁴⁵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아이오닉9, 아이오닉6 N, 넥스 등 차종에서 All-new Model로 분류되는 신규모델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중 2026년형 모델로 선공개 출시된 그랜저, 아이오닉7 등도 2026년에 본격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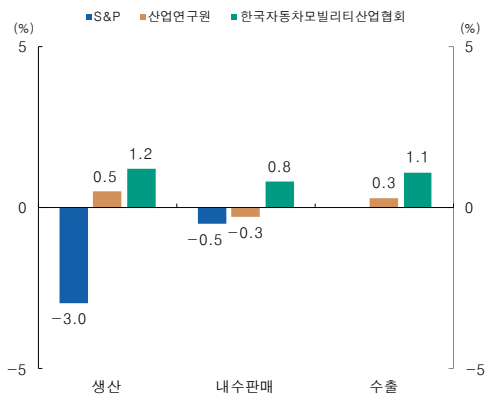
⁴⁶ 정부는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100만원 추가지원(신규 구입시 보조금은 대당 300만원 유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7,800억원(2025년)에서 9,360억원(2026년)으로 1,560억원 증액 편성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11.14일)

⁴⁷ 미국 조지아공장은 당초 전기차(BEV) 공장으로 계획되어 현재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를 생산중이나,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시장변화에 맞추어 하이브리드(HEV)도 혼류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함께 생산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HEV)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4분기 3.1%

중 현지생산 비중을 40%에서 80%(2030년 예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울산지역 대미(對美) 수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對유럽 수출은 전기차 수요증가⁴⁸, 신차 출시 효과⁴⁹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EU의 내연기관 탑재 전동화 차량 조건부 허용⁵⁰ 등 미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럽시장 내 전기차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전망¹⁾



주: 1) S&P 전망은 2025.12월 기준

자료: S&P Global Mobility,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에서 2025 2/4분기 16.3%까지 증가하였다.(S&P Global, 「What's fueling rising US consumer interest in hybrid vehicles?」, 2025.11.26일)

⁴⁸ 현대차는 20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10.7%)가 유럽(+23.5%)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1.6%)과 중국(+2.1%)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KB증권, 2025.11.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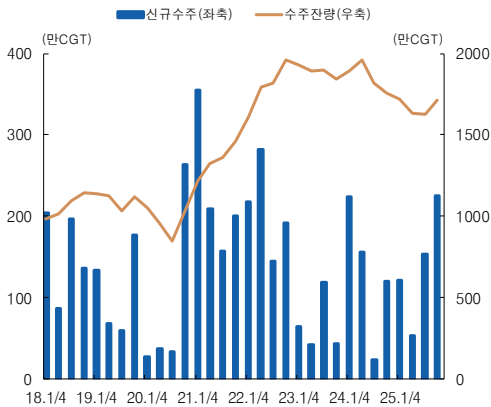
⁴⁹ 현대차는 2026년중 유럽시장에서 전기차 신차(GV90, 아이오닉3) 및 하이브리드 신규모델(투싼, i30, i20)을 출시할 예정이다.

⁵⁰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까지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내연기관차 단종)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2023.2월)한 바 있으나, 최근 2035년 신차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배출량의 90%까지 감축한다는 전제 하에 (탄소를 일부 배출하는) 내연기관이 탑재된 전동화 차량(HEV, PHEV, EREV 등)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2025.12월)하였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경남지역 조선업 동향 및 향후 전망

경남지역 조선업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 및 수출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규 수주(2025년 하반기 중)는 LNG 운반선·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3.2% 증가한 378.5만 CGT를 기록하였다. 생산(2025년 7~11월 중,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수출(2025년 하반기 중)도 전년동기대비 26.6% 늘어난 9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주잔량(2025년 12월 말 기준)은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 상반기(1,631.2만 CGT)보다 4.9% 증가한 1,711.7만 CGT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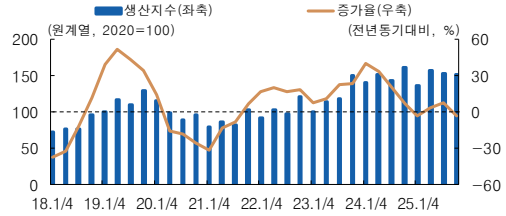
경남지역 주요 조선사¹⁾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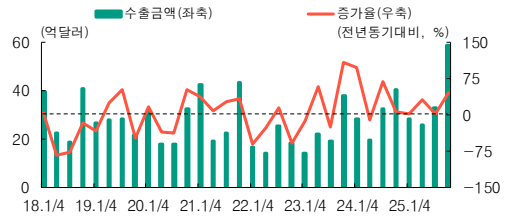
주: 1)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케이조선의 합계
자료: Clarksons

경남지역 조선업 생산 및 수출¹⁾

<생산²⁾>



<수출>



주: 1) 254/4분기의 경우 생산은 10~11월 기준

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미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하였다.⁵¹ 아울러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⁵² 논의도 진전되면서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및 군함 신조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경남지역 주요 조선사들은 향후 미 방산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함정 MRO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⁵¹ 이외에도 MASGA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등을 위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포함되었다.

⁵² 미 해군 함정의 평균 선령은 대략 20년으로 추정되며 노후화에 따른 전력 유지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자국 조선소의 인력·설비 부족과 부품 단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투자, 현지 조선소 인수⁵³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 대형 조선업체(한화오션)는 2025년 중 미 해군 비전투함 대상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영국 및 캐나다 해군 군함 MRO도 추가로 수주하였다.

앞으로 경남지역 조선업은 관세의 직접 영향은 제한⁵⁴된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아울러 MASGA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교체 수요가 높은 미 노후선박⁵⁵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MRO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축한 역량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증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상선 중심에서 미 군함 신조 등 특수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MASGA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⁵⁶ 전에는 즉각적인 협력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국 일자리 감소 및 산업 기반 약화, 군사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⁵⁷

또한 함정 MRO 사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전문 조선소⁵⁸ 간 경쟁이 치열하여 단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 해군과 장기간 거래 실적을 축적해 온 경쟁국 조선소와 유사한 수준의 신뢰 이력을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MASGA 프로젝트 관련 미국 법령 개정안 발의 현황

법령명	세부내용
존스법 (1920)	(현행안) 미국 내항구간 물품승객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개정안)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25.8월 발의):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한하여 존스법 면제
반즈-톨레프슨법 (1965-68)	(현행안)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및 수리 금지 (개정안) 「해군준비태세보장법」(25.2월 발의): 적격 외국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 건조 허용

자료: 언론보도 종합

미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함정 MRO 사업을 통해 계약 이행 실적, 일정 준수 여부, 품질·보안 관리 등에서 신뢰를 축적하고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MASGA 프로젝트를 단기 성과 창출보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환 과정으로 보고 역량도 확충해야 한다. 미국 법령 개정 전까지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중소형 조선소 및 지역 협력업체도 기술 및 보안 역량을 선제적으로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⁵³ 한화오션은 미국에 군함 생산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의 지분 19.9%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되었다.(2025.12월)

⁵⁴ 경남지역 조선업은 대미 수출 비중이 0.1%(2025년 기준)로 낮아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다.

⁵⁵ 미국 국적 상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 선박의 비중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⁵⁶ 존스법, 반즈-톨레프슨법 등이 대표적이며, 2025년 중 개정안이 발의된 후 현재까지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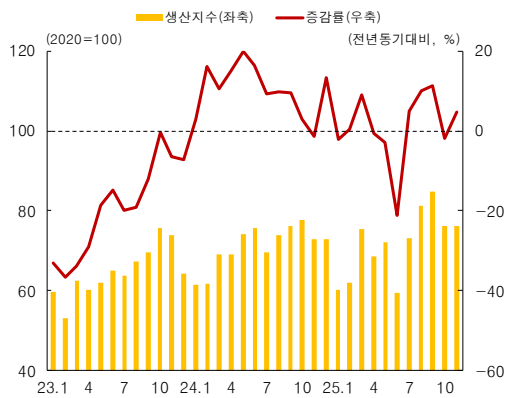
⁵⁷ 관세협상 당시 한·미 정상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 이후 합의된 2026년도 국방수권법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비전투 지원선 2척으로 제한하였다.(2025.12월)

⁵⁸ 예를 들어, 일본은 미쓰비시중공업, 사세보중공업 등이 동북아시아에 전개된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를 주로 맡고 있다. 싱가포르에도 ST Engineering 등 MRO 특화 조선사가 존재한다.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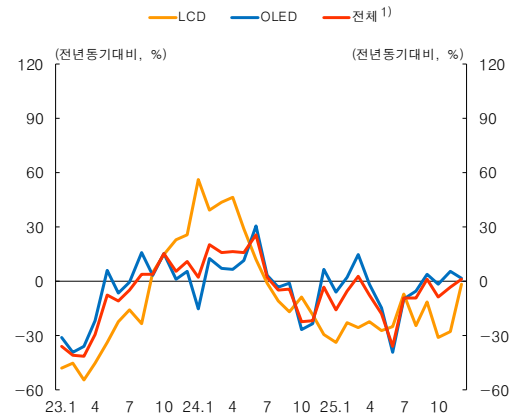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중 디스플레이 생산(전국)은 관세 회피를 위한 미국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⁵⁹ 등의 영향으로 프리미엄 OLED 패널 생산이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7~11월 중 전년동기대비 5.7%)하였다.

디스플레이 생산지수¹⁾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하반기 중 디스플레이 수출(전국)은 미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에 이어 부진하였으나, OLED 패널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정도는 완화되었다. 패널별로 살펴보면 OLED 수출은 스마트폰과 노트북·모니터 등에 탑재되는 프리미엄 OLED 패널의 양호한 성장에도 TV용 대형 OLED 수요 부진 영향으로 소폭 마이너스 성장(전년동기대비 -0.8%)

에 그쳤다. 반면 LCD 수출은 글로벌 TV 시장의 수요 정체와 중국 주요 패널 업체들의 가격경쟁 심화⁶⁰,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LCD 수출 비중(2025년 중 월평균 22.2%)이 크지 않아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디스플레이 패널별 수출 증가율¹⁾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편 하반기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상반기보다 증가폭이 확대(전년동기대비 4.5%) 되었다. 이는 지역내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⁶¹의 LTPO OLED 패널이 탑재된 스마트폰(아이폰 17 시리즈) 판매 호조와 함께 프리미엄 OLED 패널 수요 증가가 이어진 데에 기인하였다.

2026년 상반기 중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전자기기 사양의 상향 평준화로 인한 IT 제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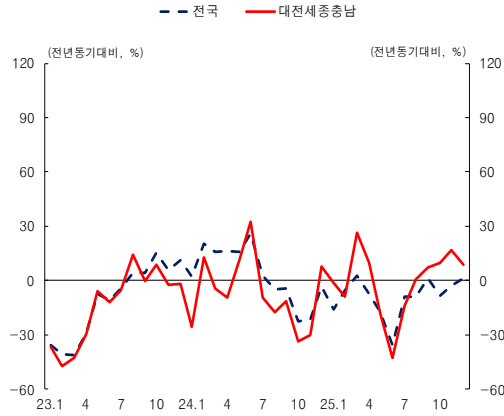
⁵⁹ 2025년 9월 9일 출시된 아이폰17시리즈는 4종 모델(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에 모두 LTPO OLED가 적용되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LTPO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하고 있다. 아이폰17 시리즈는 출시 후 6주간 전작인 아이폰 16시리즈보다 전년동기대비 미국 11%, 중국 47%, 일본 8%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⁶⁰ 55인치 LCD TV 패널 가격은 4월 129달러에서 11월에는 116달러로 하락해 최근 2년내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초반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⁶¹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아산캠퍼스, 아산2캠퍼스)과 천안(천안캠퍼스)에 OLED 생산라인 2개와 TFT-LCD 라인 6개를 보유하고 있다.

OLED 패널 수요 증가⁶² 등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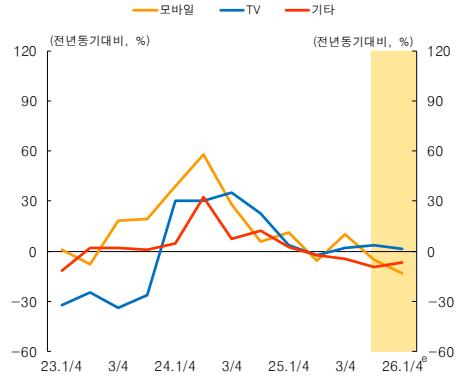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패널 크기별로 살펴보면 고성능 IT용 디스플레이인 8.6세대 OLED 양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OLED TV의 대형화 트렌드 등으로 대형 OLED 패널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AI 산업 확산에 따른 휴대폰 메모리 부품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바일 중심의 중소형 OLED 패널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당분간 주요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프리미엄 OLED 패널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 역할⁶³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OLED 패널 출하 전망¹⁾²⁾



주: 1) 수량 기준
2) 음영 부분은 전망치 기준
자료: Omdia

특히 2026년에는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⁶⁴로 인해 폴더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고, OLED 패널 적용 범위가 보급형 태블릿⁶⁵과 노트북에 이어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확대⁶⁶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의 OLED 패널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 실적 및 전망¹⁾

(단위: 조원, %)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2024	2025 ^e	2026 ^e	2024	2025 ^e	2026 ^e
매출액	29.2	29.5	32.5	26.6	25.7	25.9
영업이익	3.7	4.0	5.8	-0.6	0.7	1.2
영업이익률	13	14	18	-2	3	5

주: 1) 2025년, 2026년은 추정치
자료: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LG디스플레이, 키움증권

⁶² IT 기기용 글로벌 OLED 패널 출하량은 2025년 2,680만대에서 2026년 3,95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유비리서치)

⁶³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2025년 상반기 기준)은 한국 65.5%, 중국 34.3%로 나타났으며, 대형 OLED 시장은 한국 90.8%, 중국 9.2%, 중소형 OLED 시장은 한국 61.0%, 중국 38.8%, 일본 0.2% 순으로 집계되었다.(Omdia)

⁶⁴ 삼성디스플레이는 2026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Apple의 76인치 폴더블 아이폰에 탑재되는 폴더블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디스플레이의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 점유율은 2025년 43%에서 2026년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⁶⁵ Apple은 보급형 제품군에 해당하는 아이패드 미니에 OLED 패널을 적용해 2026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며, 해당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할 예정이다.

⁶⁶ LG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서로 다른 화면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차량용 듀얼뷰 OLED'와 적외선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하부에 보이지 않도록 내장해 풀 스크린 구현이 가능한 '차량용 UDC-IR OLED'를 개발하였다.

충북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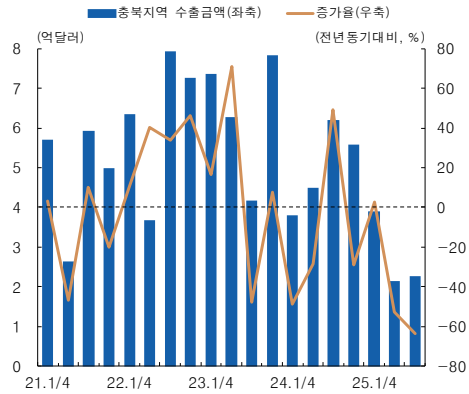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

최근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은 이차전지 완성품과 소재(양극재) 간에 상반된 수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차전지 수출은 202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27.4% 줄어든 데 이어 3/4분기 중에도 63.6% 줄어들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 내 이차전지 주요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전사기준⁶⁷)의 2025년 3/4분기 중 매출도 전년 동기대비 17.1% 감소하였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캐즘)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를 들 수 있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보조금 및 세액공제 수혜,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이차전지 3사의 해외 현지생산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통상무역연구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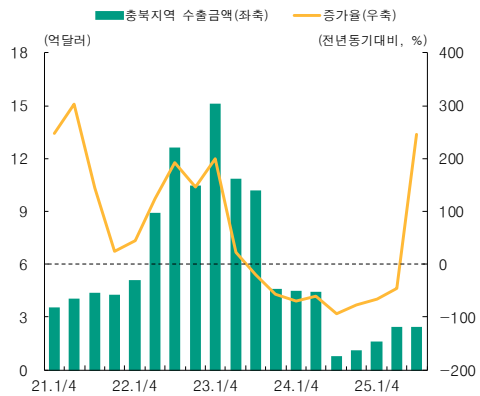
반면 양극재 수출은 202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대비 55.5% 감소하였으나 2025년 3/4분기 중에는 246.1%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 전환되었다. 양극재 주요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전사기준)의 매출도 202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에서 2025년 3/4분기 중 19.8% 증가로 돌아섰다. 최근 양극재 필수 원료인 리튬 가격이 상승⁶⁸하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산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늘어나면서 ESS용 양극재 판매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이차전지¹⁾ 수출



주: 1) 축전지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충북지역 양극재¹⁾ 수출



주: 1) 리튬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양극활물질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내 주요 기업의 매출액¹⁾ 증가율²⁾

	25.상반기		25.3/4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LG에너지솔루션	-3.7%	57.0천억원	-17.1%	
에코프로비엠	-20.8%	6.3천억원	19.8%	

주: 1) 전사기준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발표

⁶⁷ LG에너지솔루션(청주)의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매출도 포함된 내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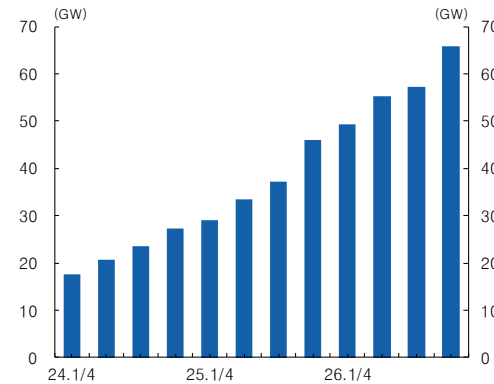
⁶⁸ 리튬 가격(CNY/kg)은 2025년 1/4분기~3/4분기 및 11월 기준 72.2, 58.8, 72.0, 85.4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향후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부진하겠으나 ESS 시장 확대가 이를 완충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의 경우 캐즘 국면 이탈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부 완화⁶⁹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 정책이 악화⁷⁰ 되면서 캐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ESS 시장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및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SS 설비 용량은 2025년 3/4분기말 36.8GW에서 2026년말 65.6GW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EIA) 이러한 ESS 시장 확대는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차전지 산업 부진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SS 설비 용량⁷¹ 추이 및 전망



주: 1) 미국 전력 부문의 1MW 초과 발전설비 기준
자료: EIA

한편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은 생산보다는 R&D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국내 최대의 이차전지 종합시험·연구시설인 BST(Battery Solution Testbed) ZONE이 2025년 4월 청주 오창에 구축된 데 이어 2025년 11월에는 이차전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고체 전지 개발지원센터가 착공⁷¹ 되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청주 오창사업장은 차세대 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성을 검증하는 마더팩토리⁷²로서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⁶⁹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4년 중 +26.9%에서 2025년 1~10월 중 +35.2%로 확대되었다.(SNE Research)

⁷⁰ 미국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1.20일)한 가운데 대규모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7.4일)되면서 전기차 신차 구매시 적용되던 세액공제 인센티브(7,500달러/대)가 10.1일부로 종료되었다. 또한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EU가 2035년부터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로 감축하는 목표에서 물러나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⁷¹ 전고체 전지 개발지원센터는 2028년까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의 개발과 시험평가를 위한 28종의 장비를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⁷²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란 제품의 연구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으로, 샘플 생산 중심의 파일럿 라인과 다르게 양산급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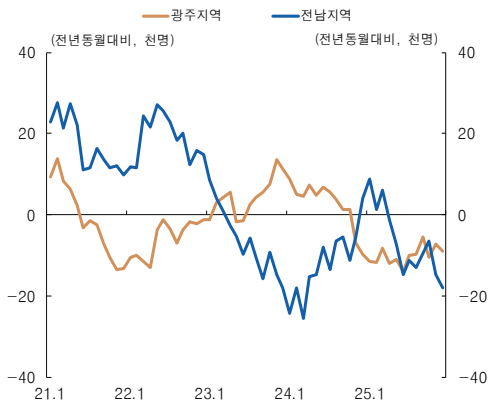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2024년 하반기 들어 자영업자 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전남지역에서도 202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영업 폐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일반사업자 폐업 건수⁷³는 2023~24년 중 직전 2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⁷⁴, 전체 폐업업체 중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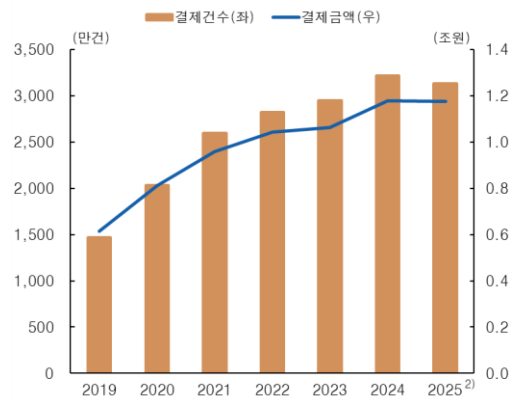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러한 자영업 업황부진 배경에는 온라인 구매 확대와 팬데믹 이후 소비 방식 변화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채널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전자상거래 결제 추이를 보면, 결제 건수와 결제 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 회식 축소 등 소비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면거래 위주의 자영업 업황이 둔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¹⁾ 전자상거래 결제 추이



주: 1) 신용카드 고객에 결제대금 청구지 기준

2) 2025년 1~11월 중

자료: 신용카드 3社(하나, 신한, 농협)

또한 지역 주력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지역은 2023년 대우위니아의 법정관리⁷⁶로, 전남지역은 석유화학이 글로벌 공급과잉 및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주요 중소 제

⁷³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중에서 법인, 면세,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 기준.

⁷⁴ 광주·전남지역 일반사업자 폐업 건수는 2023~24년 중 연평균 27.2천 건으로 2021~22년(연평균 24.8천 건) 대비 9.7% 증가하였다.

⁷⁵ 2024년 전체 자영업 폐업업체 중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은, 광주지역에서는 각각 48%, 31%이며, 전남지역은 각각 44%, 21%를 차지하였다.

⁷⁶ 광주에 본사를 둔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2023년 9월 이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3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회수 지연,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하였다.

조업체의 실적을 반영하는 산업단지 생산을 보면, 광주지역은 2024년 37.8조 원으로 2022년(40.2조 원) 대비 6.0% 감소하였고, 전남지역 역시 2024년 135.0조 원으로 2022년(139.6조 원) 대비 3.2% 감소하였다.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 생산액

(조원)

	2021	2022	2023	2024 ¹⁾	2025 ²⁾
광주	35.0	40.2	38.2	37.8(19.1)	18.6
전남	111.1	139.6	128.7	135.0(68.4)	65.3

주: 1) () 내는 2024년 1~2분기 누적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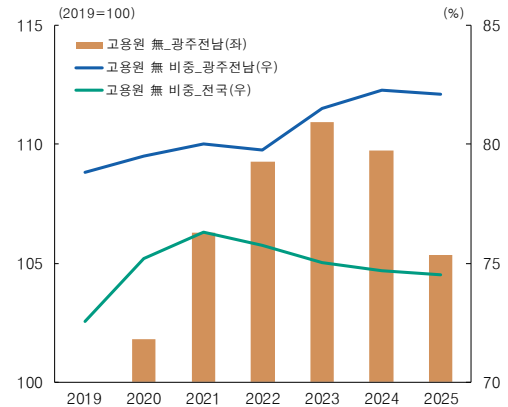
2) 2025년 1~2분기 누적 생산액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아울러 지역 건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으로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건축착공면적⁷⁷은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건설사 도산 증가⁷⁸ 등으로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주문 절차의 자동화·무인화는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고용원 축소와 ‘나홀로 사장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태블릿PC, 키오스크, 모바일 주문 등) 도입 비중⁷⁹은 전국적으로 2020년 3.1%에서 2024년 12.9%로 확대되었으며, 호남권 역시 2020년에는 도입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후 빠르게 확산되어 2024년 9.8%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2025년 광주·전남지역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82.1%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시산

종합하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고용 부진은 소비행태 변화와 자동화·무인화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주력산업 성장 둔화와 건설경기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의 소비 채널 전환과 자영업 내부의 고용 흡수력 약화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흐름인 만큼, 자영업 부문의 향후 고용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영업 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 기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활용 확대, SNS를 통한 마케팅 등과 함께,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⁷⁷ 광주전남지역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 %): 2023년 6481천m²(+1.7%) → 2024년 5,132천m²(-20.8%) → 2025년 1~10월 2,351m²(-43.4%)

⁷⁸ 2023.11월~2025.10월 중 광주전남지역 내 토담건설, 해광건설 등 10여 개의 중소중견건설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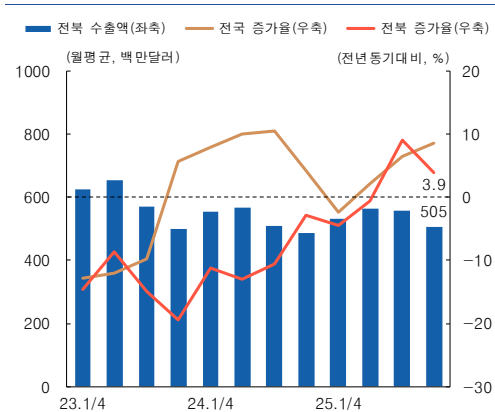
⁷⁹ 외식업체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전국적으로 2020년 3.1% → 2021년 4.5% → 2022년 6.1% → 2023년 7.8% → 2024년 12.9%로 증가했으며, 호남권은 2020년 0.0% → 2021년 1.4% → 2022년 2.4% → 2023년 1.5% → 2024년 9.8%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북본부

최근 전북지역 수출 동향 및 전망

전북지역 수출은 2024년에 감소⁸⁰하였다가 2025년 하반기 들어 증가 전환하였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수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관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농약 및 의약품 등 전북의 주력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전북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6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북지역 수출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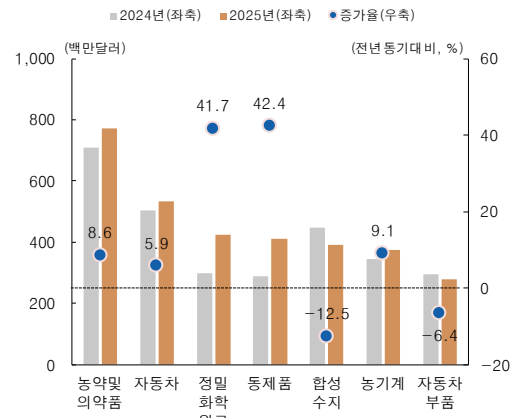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 품목 사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약 및 의약품⁸¹ 수출은 2025년 중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하였으며, 동제품(+42.4%)의 경우 AI 확산에 따른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⁸²를 나타내고 있다. 정밀화학 원료(+41.7%)도 친환경 트렌드 확산과 자동차, 방산, 반도체 등 전방산업에서의 소재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합성수지(-12.5%)는 중국 경쟁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대중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⁸³이 계속되었으며, 자동차 부품(-6.4%)도 미국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품목별¹⁾ 수출액 및 증가율



주: 1) MTI 코드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별 수출 비중은 2025년 기준 미국(19.4%), 중국(17.6%), 베트남(7.5%), 일본(5.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을

⁸⁰ 특히 2024년의 경우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나타난 전국(+8.1%)과 달리, 전북은 수출 품목 중에서 IT 품목의 비중이 낮은 구조적 특성 등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9.8%)하였다.

⁸¹ 2025년 전북의 농약 및 의약품 수출액은 771백만 달러로 전북 수출의 11.9%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브라질(수출 비중: 15.2%), 베트남(14.4%), 인도네시아(10.7%) 순으로 나타났다.

⁸² 미국 빅테크 기업(NVIDIA 등)의 AI용 GPU기판의 핵심소재인 동박적층판(CCL) 수요 확대가 수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이며, 2024년 전기차 산업의 수요 정체(Chasm) 등으로 인해 이차전지용 동박 수출이 급감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⁸³ 합성수지 수출은 2024년에도 전년대비 44.4% 감소하였고 2025년에도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다.

제치고 전북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⁸⁴하였다. 美 행정부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3/4분기와 4/4분기 전북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0.8%, 23.9% 증가하여 2025년 중 대미 수출액은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북의 대미 수출 품목별¹⁾ 비중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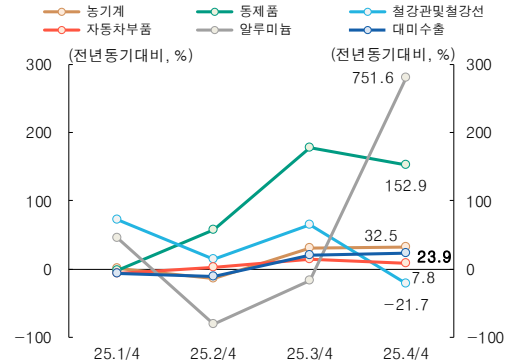
순위	2024		2025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1	농기계	280.1 <23.4>	농기계	305.3 <24.3>
2	자동차부품	90.3 <7.5>	동제품	109.1 <8.7>
3	철강관 및 철강선	78.9 <6.6>	철강관 및 철강선	98.1 <7.8>
4	인조섬유장 섬유사	77.6 <6.5>	자동차부품	93.9 <7.5>
5	동제품	61.5 <5.1>	알루미늄	51.2 <4.1>

주: 1) MPI 코드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북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농기계(비중: 24.3%), 동제품(8.7%), 철강관 및 철강선(7.8%), 자동차부품(7.5%), 알루미늄(4.1%) 등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⁸⁵가 하반기 중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동제품⁸⁶과 알루미늄⁸⁷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대미 수출 상위 5대 품목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향후 전북 수출은 최근 관세 리스크가 일부 완화⁸⁸되고 수출여건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AI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 농자재, 방산용 센서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여타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관세의 영향에 취약한 일부 업종⁸⁹에서는 수출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북의 산업구조를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출 품목을 재편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⁸⁴ 2021년까지 전북의 제1수출국은 중국이었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력 품목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면서 2022년부터 미국이 제1수출국이 되었다.

⁸⁵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표적인 농기계 생산 기업으로는 LS엔트론, ㈜TYM 등이 있다.

⁸⁶ 美 행정부는 2025년 8.1일부터 반가공 동제품 및 구리 고품량 파생상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로 인한 밀어내기 물량이 증가하면서 3/4분기 수출이 대폭 증가(전년동기대비 +177.2%)한 측면이 있다.

⁸⁷ 알루미늄의 경우 고율 관세(50%)에도 불구하고 25년 4/4분기 751.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도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내 자체 유통망(지사 및 현지공장 등)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면서 4분기로 수출물량이 집중된 데다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⁸⁸ 한-미 상호관세율이 15%로 합의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11월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⁸⁹ 예를 들어 철강산업의 경우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50%)가 유지되고 있어 수출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본부

전남 서남권 조선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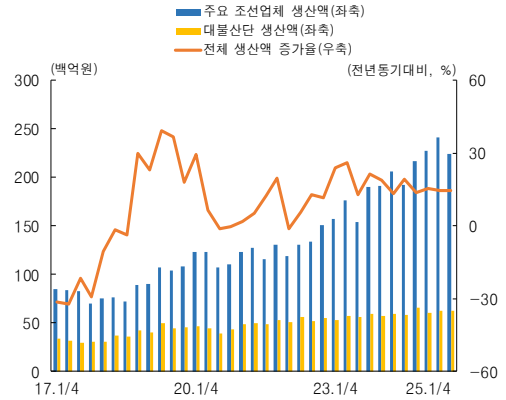
전남 서남권⁹⁰의 조선업은 2022년 이후 수주한 LNG선 등 고가 선박의 생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 조선업의 생산액은 2025년 2/4분기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2.4조원)⁹¹를 기록한 후 3/4분기에는 하계 휴가에 따른 조업 일시중단(7.28~8.8일)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14.5%)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조선업 호조세는 역내 대형 조선업체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중소 조선업체들의 생산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업체들이 밀집한 대불산업단지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조선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역내 주요 조선업체들⁹²과 대불산업단지의 생산액 격차는 2022년 1/4분기 0.7조원에서 2025년 3/4분기 1.6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지역 조선업체들의 고용은 202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5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3.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지역 내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외국인 고용 확대⁹³로 인력부족을 상당부분 해결하면서 최근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LNG선 등 수주단가는 높지만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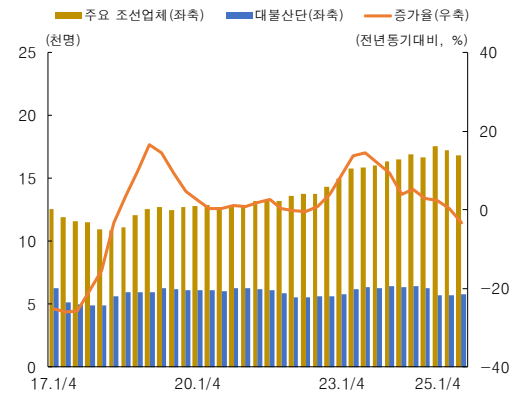
물량은 많지 않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으로 선박 건조 척수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건조기간은 길어진 점도 고용 둔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 생산액



자료: HD현대상호, 대한조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 고용인원



자료: HD현대상호, 대한조선, 한국산업단지공단

⁹⁰ 목포시 포함 인근 8개군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⁹¹ 2014.1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였다.

⁹² 전남 서남권 주요 조선업체는 HD현대상호, 대한조선을 지칭한다

⁹³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남 서남권 주요 조선업체 선종별 수주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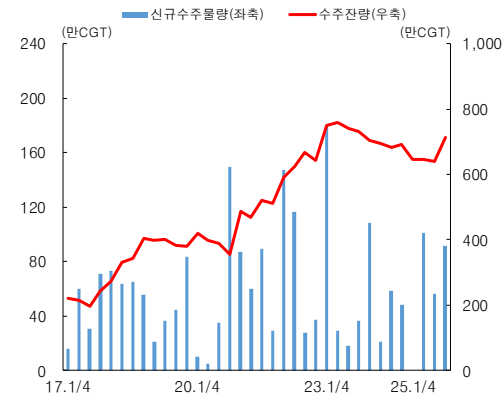
(만CGT, %)

	LNG	컨테이너	유조선류 ¹⁾	LPG	합계
보정총톤수	260.8	237.5	161.2	55.1	714.4
(비율)	(36.5)	(33.2)	(22.6)	(7.7)	(100)

주: 1) 원유운송용 탱커, 서플탱커, 석유제품 운반선
 자료: Clarksons, 2025.12.15 기준

한편 지역 중소 조선업체들의 업황이 대형 조선업체들에 비해 부진한 것은 대형 조선업체들의 선박수주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이루어진 데다 중소 조선업체들의 국제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 대형 조선사들이 주로 수주한 LNG선⁹⁴의 경우 대부분의 부품 제작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불산단 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작업 물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역내 중소 조선업체들이 우위를 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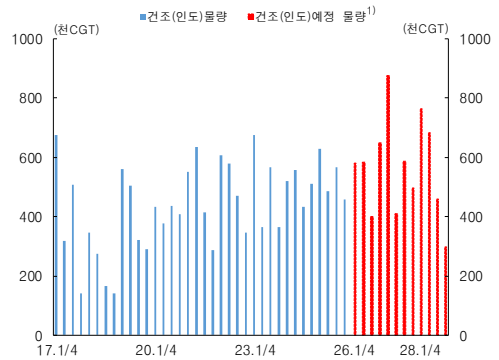
전남 서남권 주요 조선업체 신규수주물량 및 수주잔량



자료: Clarksons

앞으로도 전남 서남권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LNG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생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가운데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이 계속되며 LNG선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남 서남권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인도)물량



주: 1) 2025.12.15 기준 수주잔량에 나타난 향후 연도별 건조(인도)물량의 합계
 자료: Clarksons

이에 반해 중소기업들의 경우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적 개선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⁹⁶ 장기적으로는 선박 블록제작을 넘어 친환경 조선 기자재 생산, 해상풍력 플랜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다각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⁹⁴ 이동과정에서 -163°C를 유지해야 하며 극히 미세한 가스배출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⁹⁵ 최근 지역 내 대형 조선업체들의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의 신규수주가 미국의 중국 견제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⁹⁶ 최근 대불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AX(AI 전환) 실증산업단지로 선정되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인공지능 전환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을 통해 대불산업단지에는 2028년까지 약 22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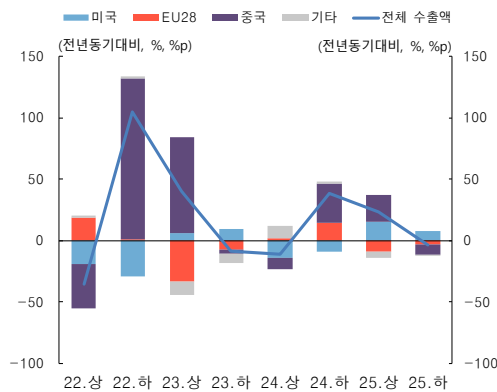
대구경북본부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대구·경북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휴대폰 수출의 최근 동향과 향후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 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2025년 하반기 중 대구·경북 지역 휴대폰 수출은 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하여 상반기 23.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품은 생산거점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감소 전환하였다. 반면 완제품은 주력 제품의 판매 호조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휴대폰 수출 증가율 및 국가별 기여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별⁹⁷로는 미국이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유럽 지역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중국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한국산 완제품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⁹⁸되고 있으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수요가 일부 해소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한편 완제품이 주로 수출되는 EU에서는 점유율 축소⁹⁹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중국은 부품업체들 간 경쟁이 심화¹⁰⁰되면서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휴대폰 수출 증가율¹⁾²⁾

품목별	2024			202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휴대폰	+16.5 [98.3]	-10.8 [33.8]	+38.8 [64.5]	+5.4 [103.6]	+23.2 [41.6]	-3.9 [62.0]
완제품	+8.7 [29.4]	-5.7 [14.0]	+26.2 [15.4]	+8.8 [32.0]	+1.1 [14.2]	+15.8 [17.8]
	+20.2 [68.9]	-14.0 [19.8]	+43.2 [49.1]	+4.0 [71.6]	+38.8 [27.5]	-10.1 [44.2]
국가별	-75.8 [3.1]	-83.6 [1.0]	-67.9 [2.0]	+341.4 [13.5]	+509.1 [6.3]	+254.6 [7.1]
	+58.6 [20.2]	+9.0 [8.8]	+145.7 [11.3]	-26.6 [14.8]	-35.4 [5.7]	-19.8 [9.1]
	+20.8 [67.4]	-15.3 [18.9]	+44.7 [48.6]	+2.9 [69.4]	+38.0 [26.1]	-10.7 [43.4]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는 수출금액(억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단가효과와 물량효과로 분해해 보면 2025년 하반기 중 대구·경북 지역의 휴대폰 수출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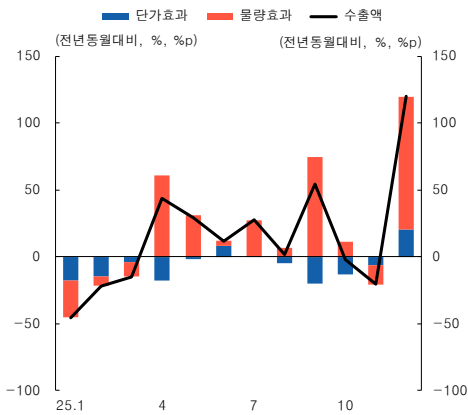
⁹⁷ 국가별 휴대폰 완제품/부품 수출 비중(% , 2024년 기준) : (미국) 97.2%/2.8%, (EU28) 99.2%/0.8%, (중국) 0.0%, 100.0%
⁹⁸ 2025년 3/4분기 북미 지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24.6%로 전년동기인 23.3%에 비해 상승하였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⁹⁹ 중국 휴대폰 완제품 업체들의 진출 확대와 애플 신제품의 판매 호조로 2025년 3/4분기 유로 지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30.1%로 전년동기인 32.3%에 비해 하락하였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¹⁰⁰ 애플 공급망에 편입된 중국 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감에는 물량효과와 단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의 경우 건조한 수요¹⁰¹에 따른 물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품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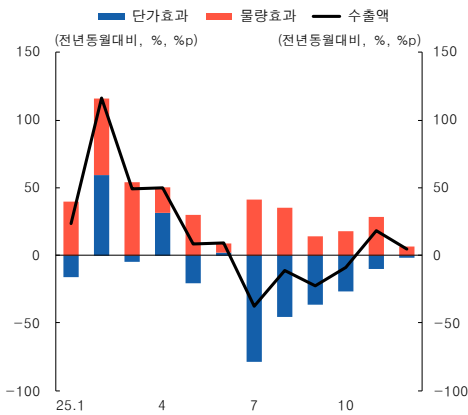
대구·경북 지역 휴대폰 완제품·부품 수출

- 단가효과와 물량효과 분해¹⁾

<휴대폰 완제품>



<휴대폰 부품>



주: 1) 대구경북본부 자체 시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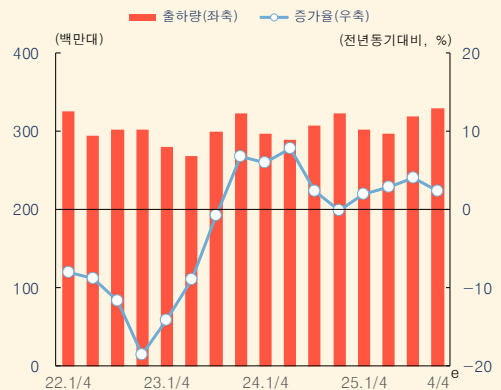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수출 흐름에도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개선 가능성과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삼성 스마트폰 판매 호조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애플 신제품의 수요 호조는 휴대폰 부품 수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휴대폰 메모리 부품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판매가격 인상 압력은 완제품 수요 확산세를 제약할 수 있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고 1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 추이

2025년 3/4분기 중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하였다.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 추이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¹⁰¹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Z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였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조사별로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유럽 지역에서 다소 부진하였음에도 북미,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애플의 경우 북미 지역의 부진에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만회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중국업체 또한 중국 내 수요 감소에도 유럽 지역에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삼성, 애플과 중국 업체를 제외한 기타 업체의 세계 점유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주요 업체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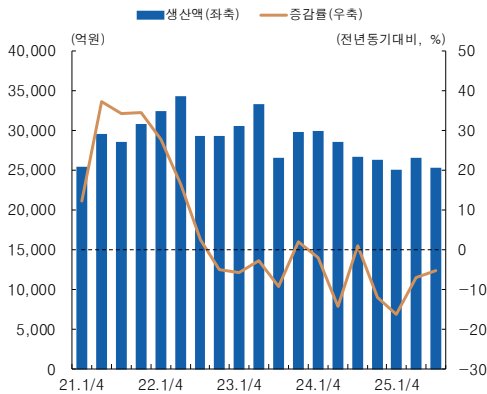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포항본부

포항지역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최근 포항지역 철강산업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1차금속¹⁰² 생산액은 2025년 2/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3/4분기 중에도 5.3% 감소하였다. 이는 철강업을 둘러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¹⁰³되고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철강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포항 철강산업단지 1차금속¹⁾ 생산액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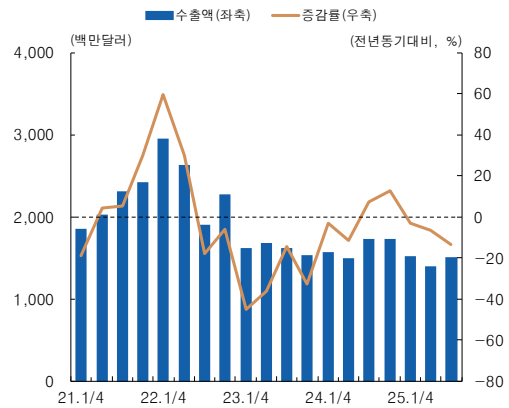


주: 1) 철강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자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편, 포항지역 철강제품 수출은 2025년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하여 2025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 6.8% 감소)보다 감소폭

이 커졌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이 철강 무역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기인한다.

포항지역 철강제품 수출액 및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철강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동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¹⁰⁴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정부와 국회는 철강업 및 지역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¹⁰⁵하여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5.11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여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¹⁰² 1차금속(Primary Metal) 산업은 철강을 포함한 금속 원재료를 제련·가공하는 산업으로, 철강산업이 대부분(85~90%)을 차지한다.
¹⁰³ 美 행정부는 6.4일부터 수입철강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6.23일부터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철강이 포함된 가전제품 8종류에 대해서도 철강함량 가치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 및 CBAM 도입(2026년 시행), 인도의 세이프가드 도입 등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¹⁰⁴ 포항지역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로 금속산업이 포항시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중 70.3%를 차지하며, 철강제품 수출액이 포항시 전체 수출액의 50%를 상회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철강업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¹⁰⁵ 2025.8월 산업통상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재취업 훈련 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이 제공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에는 저탄소 철강제품 인증제 도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등의 제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철강산업의 중장기 체질 개선과 친환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생산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전기요금 부담이 큰 철강업계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및 국회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체들은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덤핑 제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들이 보호무역 기조 아래 철강 무역장벽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각국의 잉여 수출물량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반덤핑 제소 결과,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최대 38.02%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8월중)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컬러 및 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되었다.

철강품목별 주요 반덤핑 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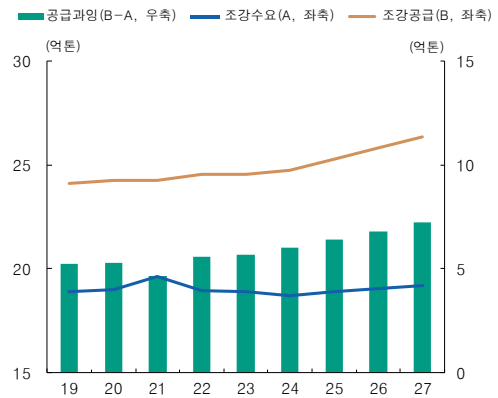
품목	대상국	조치 상황
후판	중국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판정 (2025.8.28일)

열연	중국, 일본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2026.1~2월중 최종판정 예상)
컬러 도금강판	중국	반덤핑 조사 개시 (2025.11.28일)

자료: 스틸데일리

다만, 반덤핑 조치는 수입물량 조절과 국내 시장질서 회복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겠으나, 글로벌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이라는 산업전반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철강 수요 및 공급¹⁾



주: 1) 2025~2027년은 예상치
자료: OECD

향후 포항지역 철강산업 업황은 우리 정부의 불공정 수입재에 대한 대응조치와 중국 당국의 철강제품 수출허가제¹⁰⁶ 도입 등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여지는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¹⁰⁶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1월부터 약 300여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대외무역 사업자는 수출 계약서와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 품질 검사증명서를 제출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제도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각국의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무역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동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저탄소 생산요건이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철강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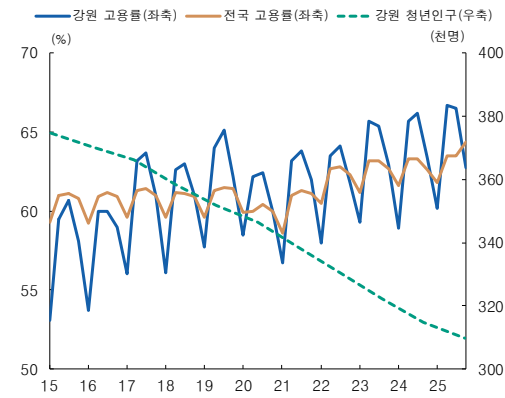
추후 국내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과 「K-스틸법」 등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탄소 전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충격 완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구조 전환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 환경과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원본부

최근 강원지역 고용 여건 점검

최근 강원지역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외형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생산연령인 청년층(20~39세)의 인구가 지난 10년간 17.3% 감소하고¹⁰⁷, 타 시도 전출 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¹⁰⁸ 좋지 않은 모습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 호조세 이면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강원지역 고용률 및 청년인구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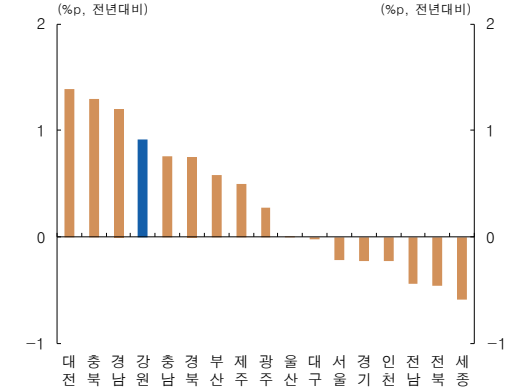


주: 1) 20~39세 인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먼저 고용의 양적 흐름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5년 중에는 고용률이 0.92%p 상승하였으며, 2분기에는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고용률이 하락한 서울(Δ0.22%p),

세종(Δ0.59%p) 등과 대조되며 전국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도별 고용률 증감 추이¹⁾



주: 1) 2024년 대비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러나 이러한 양적 호조와 달리,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의 질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급여 수준이 높아¹⁰⁹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경기 위축과 건설투자 축소¹¹⁰로 인해 도내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 수는 14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중 제조업은 4.6천명, 건설업은 6.4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숙박음식업(+8.4천명)과 농림어업(+8.1천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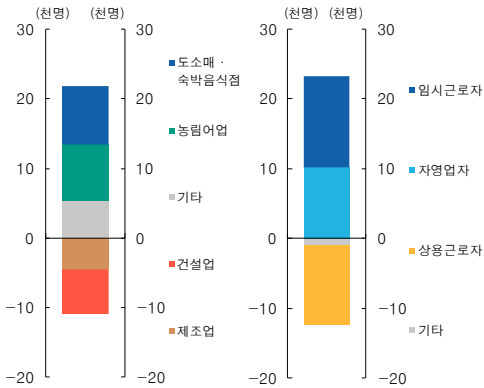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흐름 또한 고용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2025년 중 11.4천명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10.2천명)와 임시근로자(+13.1천명)는

¹⁰⁷ 강원지역 20~30대 평균 인구는 2015년말 37.5만명에서 2025년 11월 30.7만명으로 감소하였다(국가데이터처)
¹⁰⁸ 2024년 중 강원지역의 전출 사유는 주택(31.2%), 직업(26.9%), 가족(23.9%) 순이었으나, 도내 이동을 제외한 타 시도 전출(역외 유출)로 한정할 경우 직업(41.9%), 교육(26.8%), 주택(12.0%) 순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¹⁰⁹ 전국과 강원 모두 제조업과 건설업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상용월급여액, 전규모 기준, 2025)
¹¹⁰ 강원지역 건설업 GRDP는 2024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며(전년동기대비), 2025년 1~2분기에는 각각 12.2%, 12.4% 감소하였다.

증가하였다. 특히 전국적인 자영업자 감소세(△54.6천명)와는 상반되게 도내 자영업자는 증가하였는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8.1천명 늘어난 것으로 보아 생계형 창업 성격의 ‘불황형 자영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¹¹¹

직업별로도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자는 2025년 중 7.6천명 감소한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13.8천명)와 농림어업 종사자¹¹²(+13.8천명)는 늘어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고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원지역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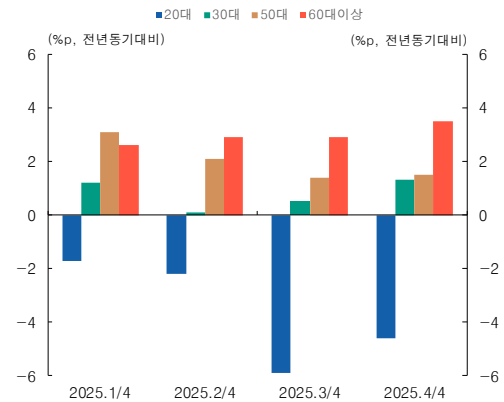


주: 1) 2024년 대비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연령별로는 고령층이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진이 지속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2025년 중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22.5천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핵심 생산연령인 20~30대(△7.6천명)와 40대(△6.2천명)는 감소하였다. 고용률 또한 50대 이상은 상

승세를 보인 반면, 20대는 하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고령층의 고용 증가는 민간의 자생적 수요보다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강원지역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¹¹³ 수는 약 5만 개에 달하며,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도 13.9개(2023년 기준)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많다.

강원지역 연령별 고용률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최근의 고령층 고용 증가는 기업의 구인 수요보다는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물가·경기 부진에 따른 생계비 부담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사·쉬었음 등)였던 고령층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고자 경제활동참여율이 상승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3분기 중에는 60대 이상에서 전년동기대비 고용률(+2.9%p)과 실업률(+0.6%p)이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¹¹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¹¹¹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 형태로 분류되며, 경기 부진 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구직자들이 재차 진입하는 ‘밀어내기식(push-driven, 생계형) 창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Bammel-서환주, 20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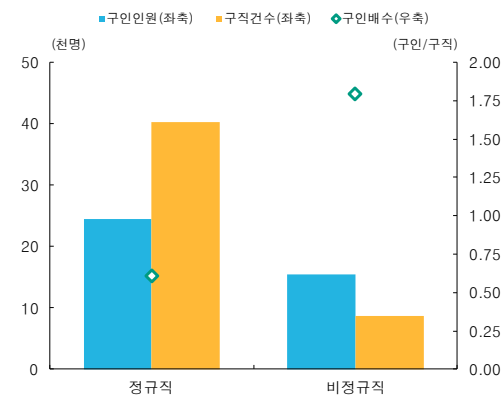
¹¹² 산업별 농림어업 종사자는 사업체의 주된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하나, 직업별 농림어업 종사자는 개인의 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농수산물 유통·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포함되는 등 개념 차이가 있다.

¹¹³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성격의 일자리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¹¹⁴ 비경제활동인구(가사, 쉬었음 등)가 구직활동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인구로 대거 유입될 경우,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이 상승하는 동시에, 실업자도 늘어나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핵심 생산인력인 청년층(20대)은 고령층과 달리 2025년 중 매분기마다 경제활동참여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며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로 분석된다. 강원지역 상용근로자의 2025년 평균 임금¹¹⁵은 356만원으로 서울(455만원)의 78.2%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건설업(60.7%)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다. 구직 선호도가 높은 정규직은 구인배수(구인인원/구직건수)가 0.61에 그쳐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1.80을 기록하며 구인난을 겪는 등 구직자의 눈높이와 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원지역 직종별 구인배수¹⁾²⁾³⁾



주: 1) 구인인원/구직건수

2) 2025년 기준

3)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각각은 시간제 근로를 포함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향후 강원지역 고용시장은 단기간 내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 또한 큰 폭의 감소세¹¹⁶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고용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또한 ‘고용 없는 성장’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최근 도내 일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 자동화(스마트팩토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에 그칠 가능성¹¹⁷이 높다.

향후 강원도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바이오·반도체 등 강원도의 7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청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 안심공제’¹¹⁸와 같은 지원책을 강화하여 장기근로 유도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정 지원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들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¹¹⁹ 참여 유도 및 실버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고령층 일자리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 4.5일제 도입 등 변화하는 노동 정책 환경이 도내 영세 사업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¹¹⁵ 2025년 4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월급여액 기준이다.

¹¹⁶ 2025년 1~11월 중 강원지역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41.0% 감소하였다.

¹¹⁷ 휴젤은 춘천시 거두농공단지 내 신공장인 3공장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신규 고용은 제한적이었다.

¹¹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월 15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가 2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이직률 개선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현재는 춘천·강릉 등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¹¹⁹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릉본부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강원영동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¹²⁰

글로벌 기후변화가 심화하면서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및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별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리스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구조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 역시 필수적이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해안과 산악이 결합된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관광 레저 서비스업 비중이 큰 가운데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시멘트 등 일부 제조업, 에너지산업이 분포해 있다. 관광 레저업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및 산업 구조적 특성상, 이상기온, 강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요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리스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ACI 지수¹²¹의 산출방식을 활용하여 고온, 저온, 폭우, 가뭄, 해수면, 풍속 등을 통합한 광역시도별 기후리스크 지수를 편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지수 및 기업활동조사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아래 수식1)을 통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ln y_{i,t} = \beta_0 + \beta_1 CRI_{i,t} + \beta_2 I(\text{reg} = \text{YD}) + \beta_3 CRI_{i,t} I(\text{reg} = \text{YD}) + \beta_4 \ln \text{ConSHH} + \beta_5 \ln \text{CONSGOV} + \beta_6 \ln \text{IVEST} + \beta_7 \ln \text{GFC} + \beta_8 \ln \text{COVID} + \beta_9 \text{YINDEX} + \beta_{10} \text{YINDEX}^2 + \mu_i + \epsilon_{it} \dots\dots\dots (1)$$

y는 실질매출액, CRI는 기후리스크지수, I는 강원영동지역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우리나라의 지출 부문 구성요소인 민간소비(CONSHH), 정부소비(CONSGOV), 투자(IVEST),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19 더미(GFC, COVID), 시간의 선형 추세(YINDEX)를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β_1 은 기후리스크 심화가 전국 실질매출에 미치는 영향, β_3 는 추가적으로 영동지역 실질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전국적으로, 기업 실질 매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강원영동지역의 경우, 여타지역(전국)에 비해 기후리스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리스크 심화시(기후리스크 지표 1 표준편차 증가시) 전국 실질매출은 1.4% 하락하는 반면, 강원영동지역의 실질매출은 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체 매출 변화는 주로 수요요인에 기인함을 고려할 때, 영동지역 산업체들이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주로 기후변화에 민감하다는 것

¹²⁰ 본고는 강릉본부의 외부공동연구(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강원영동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수현, 이에일))의 분석내용을 요약하였다.

¹²¹ ACI(Actuaries Climate Index)지수란 기후변화 모니터링 지수로서 미국 캐나다 등의 기후변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등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을 의미한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 산업이 주로 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 음식업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고에서 데이터 여건 상 고려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 등을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리스크가 실질매출에 미치는 영향¹⁾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ln y_{it}$			
	기본모형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RI	-0.014*** (-7.30)	-0.014*** (-5.74)	-0.016 (-1.39)	-0.008 (-0.45)
I(reg=YD)	-0.001 (-0.01)	0.423*** (3.33)	-0.115 (-0.62)	-0.070 (-0.28)
CRI*I(reg=YD)	-0.046*** (-2.88)	-0.053** (-2.07)	0.009 (0.26)	-0.027 (-0.63)
ln(CONSHH)	0.236 (1.31)	0.094 (0.44)	1.804* (1.84)	0.043 (0.03)
ln(CONSGOV)	1.292*** (9.59)	1.894*** (11.76)	-2.336*** (-3.06)	4.501*** (4.18)
ln(INVEST)	0.043 (0.93)	-0.133** (-2.40)	-0.614** (-2.39)	1.191*** (3.35)
C	-13.551*** (-6.36)	-16.353*** (-6.60)	17.080 (1.45)	-65.637*** (-4.02)
N	172,342	76,697	5,006	3,674

주: 1) (): t statistics, *, p_value<0.1, **, p_value<0.05, ***, p_value<0.01
자료: 저자계산

한편,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에 전국 및 강원영동지역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업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전국 산업체 매출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¹²².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 및 영동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강원영동지역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온, 강수량 등 개별 기후지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강원영동지역의 경우 이상기온(고온)의 경우 오히려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적인 열대야 현상 등 이상기온 현상이 휴가 피서객 유입을 촉진하게 되면서 관광 레저 산업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강수량 증가는 전국적으로 기업매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강원 영동지역에서 그 효과가 더 커지는 반면, 가뭄의 경우 전국, 영동지역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수 부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관광여건을 악화시켜 방문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강원영동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요 산업별 기후리스크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리스크 대응 전략을 검토할때 지역별, 산업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기후리스크가 2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생산 공정 개선, 설비 투자 지원 및 리스크 관리 인프라 확충 등 제조업 관련 대응전략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주요 산업인 관광 레저업과 관련하여서는, 교통, 안전 등 접근성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와 연계한 자연경관 활용, 열대야 등

¹²² 전체 기후리스크 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의성은 낮으나, 이상기온 관련 모형의 경우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표준편차 충격시, 5.4%(온난화), 5.8%(이상저온발생) 감소)

이상 기후로 인한 관광객 집중기의 수용능력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기후리스크 지표가 실질매출에 미치는 영향¹⁾²⁾

Dependent variable: $\ln y_{it}$				
Variables	고온	저온	가뭄	강수량
CRI	-0.115*** (-10.83)	-0.078*** (-5.47)	0.016*** (7.11)	0.054*** (4.63)
I(reg=YD)	-0.171*** (-2.75)	-0.141** (-2.31)	0.063 (0.99)	-0.076 (-1.24)
CRI*I(reg=YD)	0.206*** (2.82)	-0.005 (-0.05)	0.148*** (7.60)	0.346*** (2.92)
ln(CONSHH)	0.743*** (4.24)	0.772*** (4.34)	0.307* (1.73)	0.485*** (2.76)
ln(CONSGOV)	0.734*** (5.06)	1.024*** (7.03)	1.316*** (9.80)	1.394*** (10.35)
ln(INVEST)	-0.055 (-1.19)	-0.082* (-1.68)	0.086* (1.80)	0.044 (0.92)
C	-12.346*** (-5.85)	-15.884*** (-7.60)	-15.362*** (-7.42)	-18.149*** (-8.88)
N	172,342	172,342	172,342	172,342

주: 1) (): t statistics, *, p_value<0.1, **, p_value<0.05, ***, p_value<0.01
 2) 가뭄의 경우 지수가 낮을수록 '가뭄정도가 심함' 으로 정의되므로 + 부호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
 자료: 저자계산

제주본부

최근 제주지역 우주산업 추진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관광 섬’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우주산업 비전 선포 이후, 짧은 기간에 인프라 구축·기업 유치·인재 양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위성 제조·지상국·항법시스템·데이터 활용을 한 데 모은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광 중심 도시에서 첨단산업 거점으로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¹²³

제주도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¹²⁴, 산업단지 총량 규제 특례 등 법·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전국 최초 민간상용 위성 해상 발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재편한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는 제주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2024년 6월 항공우주 분야 기회발전특구 1호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전담 공무원 운영과 인허가 신속처리로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였으며,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意向을 표명한 상태다.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되면 위성 제조·관제·데이터 기업이 집적된 민간 우주산업단지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감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에는 2025년 앵커 기업의 생산시설이 준공되었다. 2024년 착공한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총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초소형 위성 제조·시험 시설로 2026년부터 최대 연간 최대 100기의 위성이 생산된다. 센터 가동 시 약 1,000명의 직·간접 고용이 예상된다.

또한 제주시 한림읍에는 민간 기업 (주)컨택이 저궤도 위성 지상국을 운영 중이다. 12기 안테나를 갖춘 국내 최대 민간 지상국으로, 11개국 16개 지상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위성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5위권 규모다.

공공 인프라로는 서귀포시에 국가위성운영센터가 2030년까지 약 70기 위성을 관제할 계획이며, 하원테크노캠퍼스 내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

¹²³ 전파 간섭이 적고 적도와 가까운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우주산업 육성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¹²⁴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정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특구로, 기업이 해당 지역에 본사·공장·연구소를 이전 또는 투자 시 소득법 인·지방세 감면, 보조금·정책금융, 규제 특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탐(KPS) 지상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로써 제주가 위성항법·관제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지역 내 우주산업이 미치는 경제효과¹⁾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고용) 유발효과
5,570억원	3,015억원	4,652명

주: 1)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의 15대 핵심 사업」에 의한 지역 경제효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 우주산업 육성 사업으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5,570억, 3,015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5년 9월 기준, 우주 관련 7개 기관·기업 종사자는 146명으로 그 중 85명(58.2%)은 현지 채용 인력이다. 특히 연구·엔지니어 등 고난도 전문직 비중이 70%를 웃돌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재 양성도 병행 중이다. 제주대학교는 항공우주기업 취업준비반¹²⁵ 과 융합전공을 운영하며, 큐브위성 개발 과제가 누리호 4·5차 부탑체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해 기업과 연계한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64.5%가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응답해, 산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3+1”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목표

- 민간 우주산업 1000조 창출
- 우주기업 1000개 유치 및 육성
- 우주 전문인력 3만명 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우주산업 정책은 짧은 기간에 인프라·기업·인력이라는 세 축에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성과가 아직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 중소·스타트업의 참여와 데이터·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토지 이용, 군사·비군사 활용 문제 등은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요구된다. 하원마을 주민 설명회, 해외 우주산업 클러스터 벤치마킹 등 현재 진행 중인 소통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경남·대전 등 기존 우주 거점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제주의 위치를 ‘위성 데이터 활용, 관광·체험 특화 거점’으로 명확히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¹²⁶ 유망기업 본사 이전·상장 지원¹²⁷과 연계한 투자 전략을 확대한다면, 제주는 관광과 우주산업이 결합된 복합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¹²⁵ 한화시스템 등 항공우주기업 취업준비반을 운영해 전기전자·기계·컴퓨터·통신·물리 전공 학생 20여 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한화시스템 공채에 지원했다.

¹²⁶ 경남 지역은 항공방산 기반 위성체 제조에 특화된 업스트림 생산 거점을, 제주 지역은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체험 관광을 결합한 다운스트림 서비스 거점을 지향한다.

¹²⁷ 우주방산 분야 핵심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 KRS는 2025년 9월에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투자계약을 맺고, 11월에 제주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